

온라인 예배 경험자들, ‘온라인으로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 생각한다’ 82%!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회의 변화 하나를 꼽으라면 ‘온라인 예배’를 들 수 있다. 최근 발표되는 조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교회 공동체성과 신앙생활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최근 기아대책과 우리 연구소에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신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 예배 경험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무려 82%로 나타났다. 물론 이전부터 쌓여온 교회에 대한 소속감에 근거한 응답이겠지만 온라인 예배와 소속감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신교인 가운데 대면 방식의 신앙생활을 선호하고 이전과 같은 대면예배를 갈망하는 이가 많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할 지점에서 있는 것 같다.

이번 <넘버즈 151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문화 확산이 개신교인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교회가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개신교인의 온라인 신앙 생활

본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온라인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개신교인의 온라인 신앙 인식 및 활동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바, 통계상의 유의미한 지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조사 개요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표본 규모	총 1,500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고령화 가중치 적용*)
•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4월 15일 ~ 4월 25일 (11일간)
• 조사 주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 기아대책 /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가중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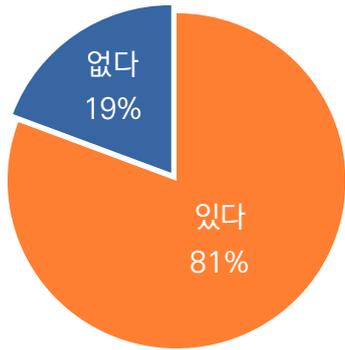
- 1) 2015 인구센서스 기준 개신교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 2) 조사 완료 후 한국갤럽의 종교분포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별 가중치 부여
: 2021년 3-11월 전국 면접조사 결과를 취합한 자료이며, 총 6003표본의 응답 결과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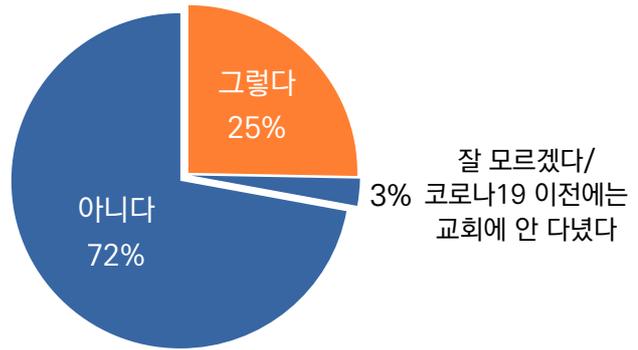
개신교인 81%,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 경험 있다!

-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 비율은 81%로 나타나 대부분의 개신교인이 온라인 예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한편 코로나 이전 온라인 예배의 경우 교회출석자 4명 중 1명(25%)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답해,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한 하나의 예배 트렌드로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 경험 (개신교인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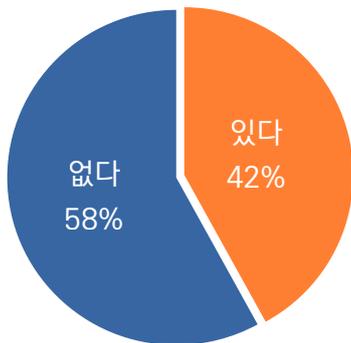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이전 온라인 예배 여부 (교회출석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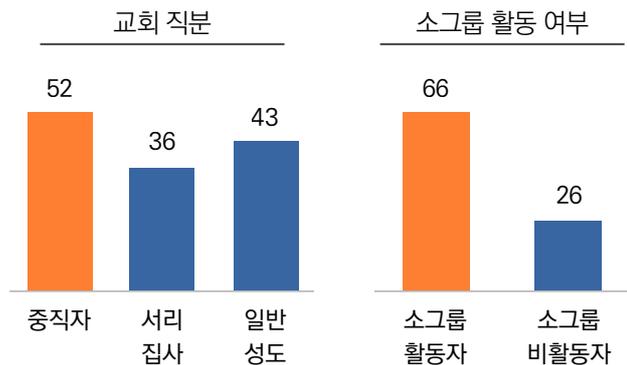
◎ 교회 출석자의 42%, 온라인으로 교회 모임 한 경험 있다!

- ▶ 교회 출석자에게 온라인 실시간 미팅 서비스를 통해 교회/신앙 관련 모임을 한 경험을 물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 교회 직분별로는 중직자층이 온라인 모임 경험률이 높고,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훨씬 높았다.

[그림] 온라인으로 교회/신앙 관련 모임 경험 (교회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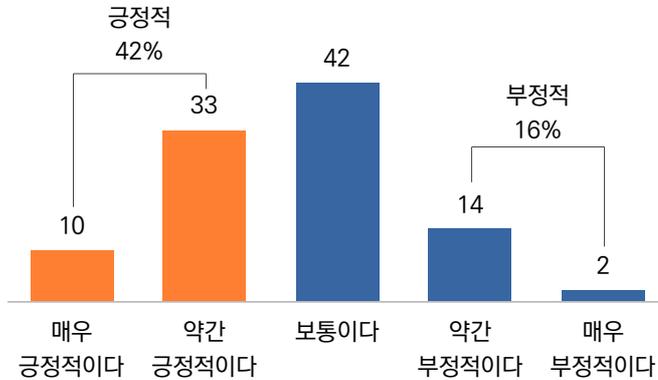
[그림] 온라인 교회/신앙 관련 모임 경험 '있다' (교회 출석자, %)



◎ 온라인 신앙 생활에 대한 인식, 비교적 긍정적(42%)!

- ▶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2%,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6%로, 전체적으로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연령별, 지역별, 교회 직분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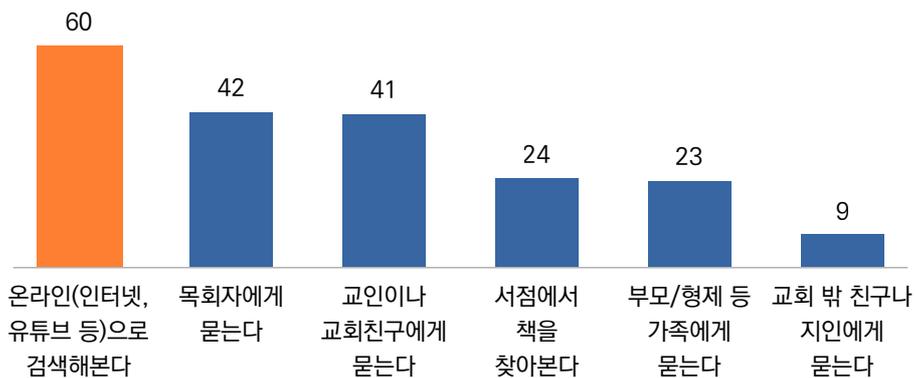
[그림] 온라인 신앙 생활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전체, %)



◎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 해결, '목회자'에게 묻기보다 '온라인 검색' 먼저 한다!

- ▶ '기독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궁금증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개신교인들에게 물은 결과, 온라인(인터넷, 유튜브 등) 검색이 1위로 꼽혔다.
- ▶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묻거나(2위), 교인/교회친구에게 묻는다(3위)는 답변보다 온라인 검색이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방법 (1+2순위, 개신교인 전체, %)



◎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방법,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 검색’이 일상화

-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방법에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까? 연령별 1위를 보면, 30세 이상에서는 ‘온라인 검색’이고, 20대는 ‘부모/형제 등 가족에 묻기’로 나타났다. 다만 20대에서도 ‘온라인 검색’(2위)이 1위와 격차가 거의 없어 ‘온라인 검색’을 통한 신앙 궁금증 해결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방법 (연령별, 상위 3위, %)

연령	1위	2위	3위
19~29세	부모 등 가족에 묻기 (46%)	온라인 검색 (46%)	교인/교회친구에게 묻기 (45%)
30~39세	온라인 검색 (52%)	교인/교회친구에게 묻기 (40%)	목회자에게 묻기 (39%)
40~49세	온라인 검색 (60%)	목회자에게 묻기 (43%)	교인/교회친구에게 묻기 (42%)
50~59세	온라인 검색 (61%)	목회자에게 묻기 (43%)	교인/교회친구에게 묻기 (41%)
60세 이상	온라인 검색 (67%)	목회자에게 묻기 (45%)	교인/교회친구에게 묻기 (40%)

02

온라인 예배 경험자, ‘온라인으로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 생각한다’ 82%!

- 온라인 예배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느낀 점을 물었다.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교회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에 대해 무려 82%가 ‘그렇다’(약간+매우)고 응답해, 대부분의 온라인 예배자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3%가 ‘그렇다’(약간+매우)라고 답해 앞에서의 소속감보다는 떨어지지만, 절반 이상의 온라인 예배자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도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인식 (온라인 예배 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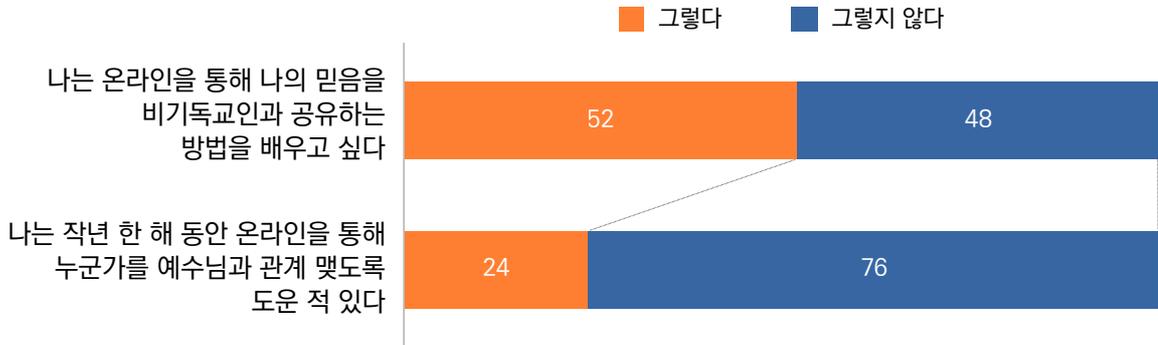


*그렇다(매우+약간), 그렇지 않다(매우+약간)임

◎ 개신교인 4명 중 1명, 지난 1년간 ‘온라인 전도’ 경험 있다

- ▶ 개신교인의 온라인 신앙 활동 중 하나로 지난 1년간 온라인 전도 경험을 물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누군가를 예수님과 관계 맺도록 도운 적이 있다’(매우+약간)에 대해 개신교인 4명 중 1명 가량(24%)이 ‘그렇다’고 응답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전도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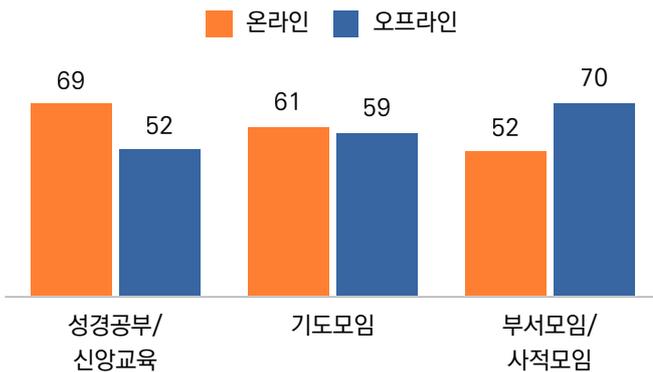
[그림] 온라인 신앙 활동 성향 (개신교인 전체, %)



◎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 활동률, 성경공부/신앙교육(69%) > 기도모임(61%) > 부서모임(52%) 순!

- ▶ 코로나19 기간 온라인으로 교회 활동 참여를 물은 결과, ‘성경공부/신앙교육’, ‘기도모임’, ‘부서모임/사역모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모임과 비교해 보면, ‘성경공부/신앙교육’의 경우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참여율이 높았고, ‘기도모임’은 비슷했다.
- ▶ 부서모임/사역모임의 경우는 오프라인 비율이 온라인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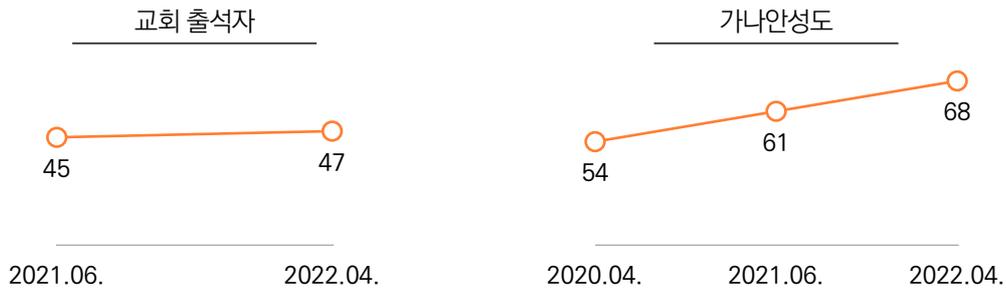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의 신앙 활동 참여 방식 (교회 출석자, 중복응답, %)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 점점 높아지고 있어

- ▶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는 ‘온라인 교회’의 경우 참여 의향률이 코로나 19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교회출석자의 경우 47%에 이르렀고, 가나안 성도의 경우 2년 전인 2020년 4월 54%에서 올해엔 68%까지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
- ▶ 가나안 성도의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이 70%를 육박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가나안 성도 사역 전략에 대해 한국교회가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 (매우+약간 의향있다, %)



*2020.04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4.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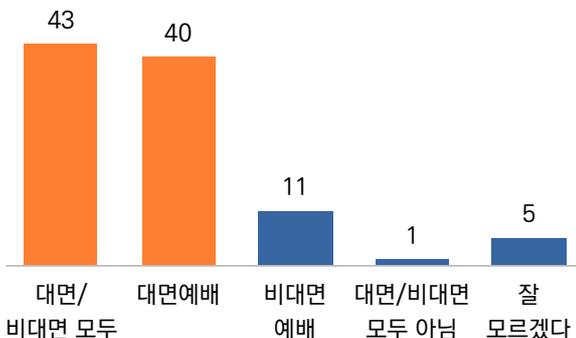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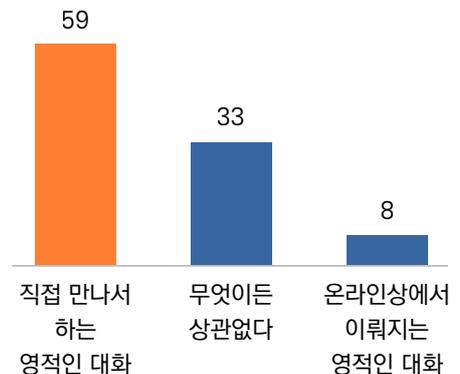
개신교인, 실제 ‘대면 방식’의 신앙생활 더 선호!

- ▶ 앞서 온라인 신앙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예배 모임’을 물었을 때 어떤 답변을 할까?
- ▶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예배 모임 유형의 경우 ‘대면 예배’와 ‘대면/비대면 모두’가 가장 높았고, ‘비대면 예배’만 꼽은 비율은 11%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대면 예배 선호도가 더 높았다.
- ▶ 영적 대화를 나눌 때 선호하는 방식도 ‘직접 만나서 하는 영적인 대화’(59%)를 선호하는 비율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영적인 대화’(8%)를 크게 앞질렀다.
- ▶ 온라인 신앙 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나 실제 개인 신앙 생활(특히 예배, 영적인 대화 영역)은 대면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 모임 유형 (개신교인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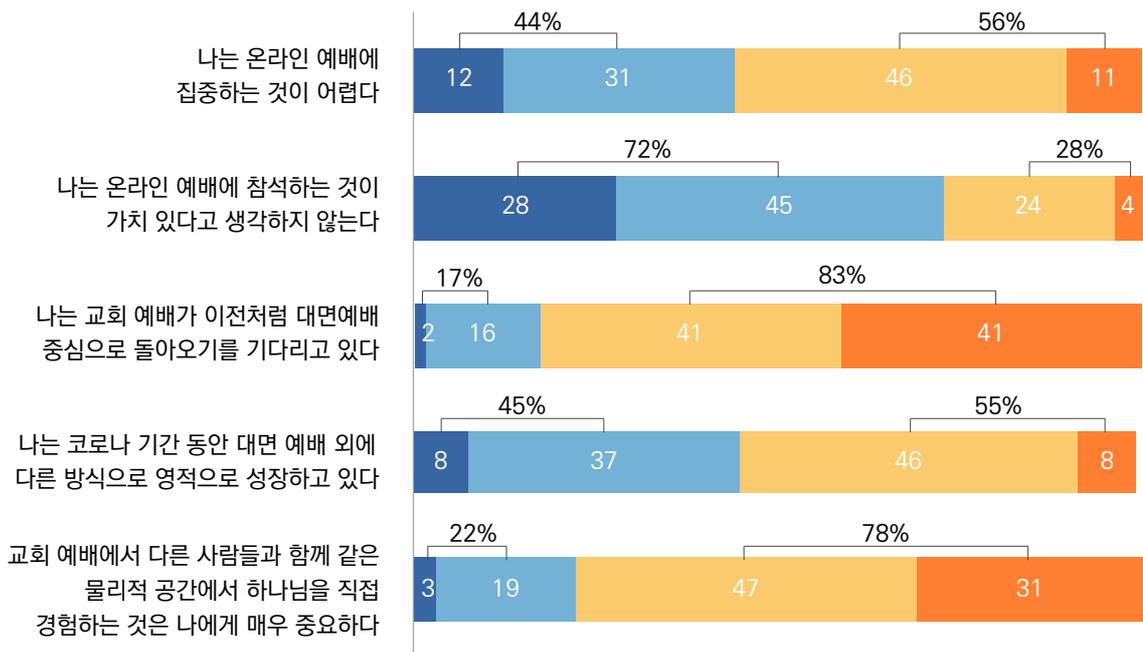
[그림] 영적인 대화 시 선호 방식 (개신교인 전체, %)



◎ 개신교인, '교회 예배가 이전처럼 대면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다' 83%

- ▶ 온라인 신앙 생활 및 디지털 교회에 대한 인식 등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나, 대다수의 개신교인(83%)은 '교회 예배가 이전처럼 대면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길 기다린다'(매우+약간)고 응답하여 대면 예배를 기다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 ▶ 온라인 예배 참석은 가치 있으나(72%),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56%),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길 원하는 비율(78%)이 높은 것 등이 '대면 예배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예배에 대한 인식 (교회 출석자,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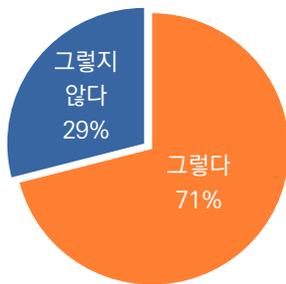


04

개신교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가 '미래의 디지털 교회' 생각하는 계기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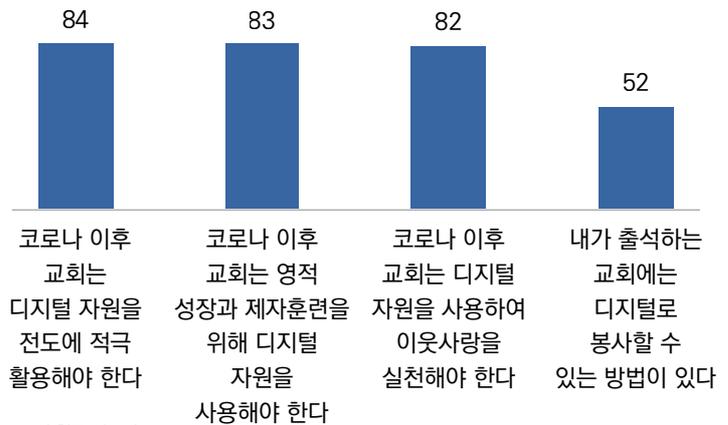
- ▶ 코로나19 경험 후 개신교인 71%는 '미래의 디지털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 ▶ 한편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디지털화를 시도해 왔는데, 이와 관련 '교회는 디지털 자원을 전도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영적 성장과 제자훈련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매우+약간)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 반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는 디지털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에 대해 52%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교회의 디지털 자원 활용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지만 현실적 여건은 아직 충분치 못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해 미래의 디지털 교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 비율 (개신교인 전체)



*4점 척도 질문임
**그렇다(매우+약간), 그렇지 않다(거의+별로)임

[그림]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회에 대한 의견 (교회 출석자, %)



*4점 척도 질문임
**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출석교회의 디지털 시대 대응은? 읍면지역/소형교회일수록 대응 평가 낮아져!

- ▶ 앞서 디지털 자원 활용의 여건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는데, 출석교회의 디지털 시대 대응 정도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5%는 '잘 대응하고 있다', 28%는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했다.
- ▶ 이를 지역 크기별로 보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 순이었고, 교회 규모별로 보면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와 99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 간 대응 정도의 차이가 컸다.

[그림] 출석교회의 디지털 시대 대응 정도 (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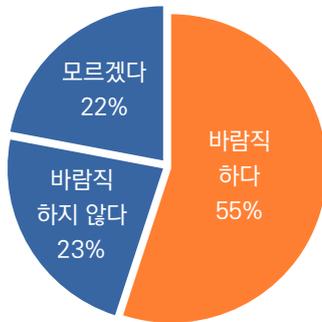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
**잘 대응함(매우+어느정도), 대응하고 있지 못함(전혀+별로)임

◎ 교회의 AI/메타버스 도입, 개신교인 절반 가량 ‘바람직하며, 긍정적 영향 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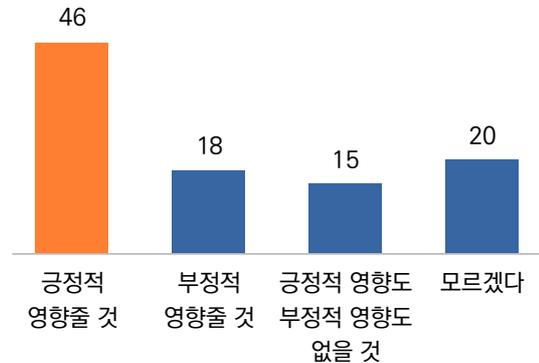
- ▶ 교회가 AI/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55%가 ‘바람직하다’, 23%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더불어 AI나 메타버스의 도입과 발전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였고(46%),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은 18%였다.

[그림] 교회의 AI 도입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전체)



*4점 척도 질문임
**바람직하다(매우+어느정도), 바람직하지 않다(전혀+별로)임

[그림] AI 도입의 한국교회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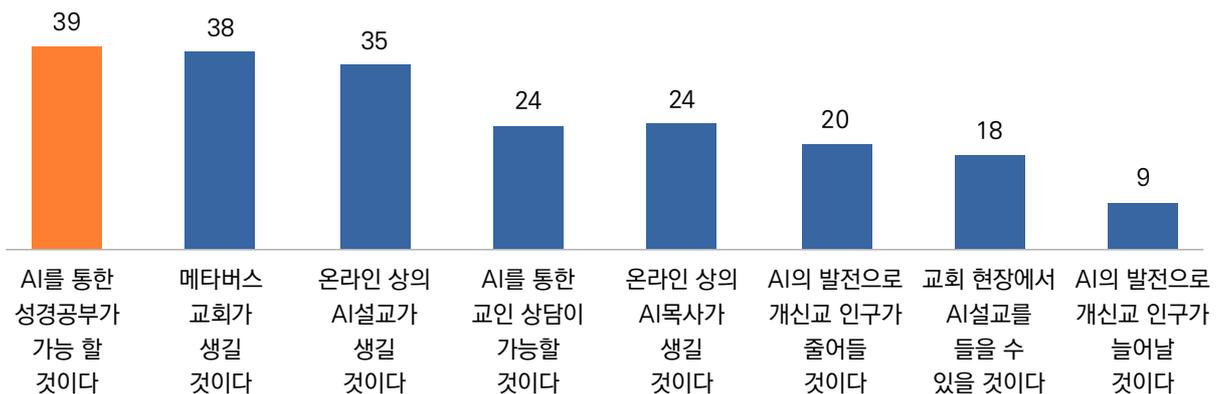


*5점 척도 질문임
**긍정적 영향 줄 것(매우+어느정도), 부정적 영향 줄 것(전혀+별로)임

◎ 개신교인, 10년 뒤 ‘AI 설교가 생길 것’ 35%!

- ▶ 개신교인들은 10년 뒤 미래 한국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10년 뒤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8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질문한 결과, ‘AI 성경공부’(39%), ‘메타버스 교회’(38%), ‘온라인 AI 설교’(35%)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AI 상담’, ‘AI 목사’, ‘교회 현장 AI 설교’ 등을 예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목회/상담 등은 AI의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컸다.

[그림] 10년 뒤 한국교회 모습 예상 (개신교인 전체, 중복응답, %)



코로나19 감염자가 7월 3일 0시 기준 확진자가 10,059 명이나 될 정도로 코로나19는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코로나19에 대해 거의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남겨준 자취와 그에 대한 성찰 그리고 앞으로의 달라진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교회에 남긴 과제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다. 코로나19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을 때, 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뜨거웠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통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교회가 지적이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급격히 줄어 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교회의 관심은 현장 예배 참여 숫자를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모아져 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현장 예배 숫자 회복의 관점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온라인 예배를 둘러싼 관심이 초기의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에서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지, 지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고민의 배경에는 오직 성도를 현장 예배로 불러내서 코로나19 이전의 회집 숫자를 회복하는데 관심이 깔려 있다. 온라인 예배의 지속 여부도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장 예배 참여 숫자를 극대화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으로의 이행,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사회문화적 변동은 시대적 흐름이라 거역할 수 없는 것인데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 예배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 공동체로서의 상호 교제와 나눔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과 개인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 연구소의 코

로나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에 점점 익숙해지고 현장예배 못지 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교회 예배가 예전처럼 대면 예배 중심으로 돌아 오기를 기대’(83%)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78%)고 인식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성도가 대면 예배, 공동체 예배에 대한 강한 욕구를 아직 가지고 있다.

오프라인에 대한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온라인 채널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가상 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온라인의 영역이 더 넓어질 것이다. 사회 속에서 개인화된 자신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진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넘버즈 4호 ‘나홀로 라이프’, 14호 ‘트렌드-인간 관계’ 35호 ‘외로움’ 살펴 볼 것) 그러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분리할 수 없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목회가 요구된다. 앞으로의 온오프 병행 목회는 오프라인 현장예배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현장 예배를 실시간이나 사후에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서로 보완적 효과를 거두거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물리적 공간에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예배와 나눔과 세움을 확인하고 강화하며, 흩어져서 온라인을 통해 말씀 적용과 나눔과 세움 그리고 권면을 날마다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온오프라인이 병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짐을 나누는 목회가 앞으로 필요한 목회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둘을 아우르는 옴니채널(Omni-Channel) 위에 복음을 올려놓는 것,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